국내 마감시황

2026.2.2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AI 투자심리에 불 붙인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강력한 AI 수요 재확인

반도체, 피지컬 AI, 전력기기주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307.27pt (+3.67%)	1,188.15pt (+1.97%)	944.02pt (+4.45%)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25.70 원 (-2.1 원)	3.5100% (-4.6bp)	6,950.50pt (-0.1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6,612 억	-5,476 억	-5,581 억
외국인	-21,076 억	+4,031 억	-3,147 억
기관	+12,426 억	+1,893 억	+9,249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 및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AI 수요를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에 시총 상위 반도체와 피지컬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6,000pt 돌파 하루만에 6,300pt까지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비 부진했던 코스닥에도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견조한 경제 성장세에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KOSPI는 3.67%, KOSDAQ은 1.97%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8.5조원, KOSDAQ은 약 17.8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1조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IT 서비스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1.2조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제약과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 실적으로 AI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피지컬 AI 기대감도 함께 유입되면서 현대차그룹과 LG그룹주, 로봇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전력기기 업종이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 NAVER 등이 반등했습니다. 한편, 조선, 은행, 음식료, 유통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한미반도체(+29.85%), LG전자(+10.05%), 삼성전자(+7.13%)가 올랐고, 롯데쇼핑(-4.46%), HD한국조선해양(-3.32%), 우리금융지주(-2.95%)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